

특집논문

공론장으로서의 신소설과 젠더기획

김복순 |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좌'

서연주 | 신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광기

이선옥 | 근대 공론장에서의 여성 담론

: 연설체 신소설을 중심으로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서의 ‘여성의 죄’

김복순*

차례

1. 두 개의 진화론·두 개의 계몽에서의 정의·죄의 차이
2. ‘서구적 보편’으로의 재편과 ‘여성의 죄’의 제 양상
 - 2.1 무력한 모성
 - 2.2 비‘자유연애’자 본처
 - 2.3 개인적 욕망 추구자 악비(惡婢)·첩·무당
 - 2.4 복수하는 여자
3. ‘비서구적 보편’의 추동과 ‘여성의 죄’의 부재
4. 맺는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소설에 나타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젠더적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사회진화론 사상 및 문명개화를 폭넓게 호명한 신소설에서 ‘새로운 보편’은 어떤 의미망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와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 계몽의 방식 및 정의·죄와 관련한 내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적 보편을 추동한 경우, 무력한 모성과 비‘자유연애’자 본처, 개인적 욕망을 희망하는 악비·첩·무당, 복수하는 여자는 ‘정의의 타자’로서, ‘죄’로 처벌되었다. 남성의 경우 무력한 가장이나 난봉꾼들도 ‘죄’로 처벌되지 않고 개화의 일꾼으로 호명된 반면, 여성들은 개화의 취지와 부합해

도 ‘개인적 욕망 추구’에 불과한 ‘죄’로 처벌되었다. 남성의 복수는 정당한 것으로 그려진 반면, 여성의 복수는 ‘남장’을 하여야만 가능하거나, 정당성이 있어도 처벌되었다.

반면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경우, ‘여성의 죄’는 ‘부재’로 설정되었다.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에서 여성도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보여주었다. ‘비서구적 보편’ 추동 패러다임에서는 근대성의 ‘주체’ 범주에서 여성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며, ‘권도’라는 ‘새로운 정의’는 여성성과 배치되지 않았다. ‘서구적 보편 추동’ 신소설에서 보여준 ‘정의의 원칙’의 한계가 여기서는 ‘타자를 포섭’하는 ‘인정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전자의 경우 신소설에 나타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젠더’를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젠더보다 ‘민족’ ‘국가’ 범주가 우선성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이로써 모든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젠더’가 핵심 원리, 우선성의 원리였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근대성의 젠더가 남성성’이라 평가한 기존의 이론을 수정케 하는 부분이다. 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과 비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차이가 있었다.

핵심어 : 신소설, 여성의 죄, 모성, 복수, 사회진화론, 계몽, 서구적 보편, 비서구적 보편

1. 두 개의 진화론·두 개의 계몽에서의 정의·죄의 차이

페미니즘 인식론은 근대, 계몽, 객관성, 보편성 등에 투입해 있는 이성 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서구중심주의를 지적하면서 존재 근거, 인식 근거, 사유 근거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음을 항변한 바 있다. 근대, 계몽, 객관성, 보편성 등의 젠더가 ‘남성’임을 밝히면서 근대미학이 여성을 타자화 하는 다양한 규율담론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천명한 바 있다.¹⁾ 테리 이글턴의 말처럼 미학이 제도화 한 권력구조를 개인의 내면으로 재배치

* 명지대 교수

하여 새로운 주체형성에 기여한다면, 식민지화의 국면에 봉착한 시기에 새로운 서사양식으로 부각된 신소설은 근대, 계몽, 객관성, 보편성 등을 어떻게 개념화 하면서 담론으로서의 '차이'를 구가하고자 했을까.

19-20세기 초 동아시아는 중화질서라는 고유의 문명기준(standard of civilization)이 서양의 또 다른 문명기준과의 충돌 속에서 빚어지는 혼돈과 모색의 시대였다. '숯불과 얼음' 관계로 부를 만큼 상이한 가치체계들이 조우하면서, 기왕의 패러다임은 외부로부터 온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역전되고 전복될 위기에 처한 거대한 전환기였다.²⁾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서구문명에 의지해 탄생한 것이지만, 비서구가 모두 서구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서구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이라 해도 그 내포가 동일하지 않아서, 프랑스 혁명이 말하는 계몽과 영국의 (중심부로 확산된 스코트랜드의) 계몽은 서로 다른 방식이었다.³⁾

이 시기 조선에 소개·수용된 사상도 모두 '근대' 지향적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반근대 또는 탈근대 담론들이 등장하면서 근대 담론과 함께 경쟁하기 시작했다.⁴⁾ 반근대나 탈근대 담론들은 '서구적 보편'을 그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았으며, 특히 식민지화의 위협을 느낀 나라들은 '비서구적 역량'으로⁵⁾ '보편성'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었다.⁶⁾ 한 예

- 1) 김복순, 「만들어진 보편」,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 2) 강상규, 「국가 간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다」,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점필재, 2013, 27~8쪽.
- 3) 井上達夫, 『普遍の再生』, 岩波書店, 2014, 146~156쪽. 근대주권국가 형성에 '지적'인 매개가 되는 것만이 계몽의 유일한 존재방법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 혁명은 보편적 인권원리(자유·평등한 인권)에 의해 정당화 되면서 문화적 다원성이 폐기되는 '동화'의 사상이었으나, 영국(특히 스코트랜드)의 계몽은 귀족 계층의 이기심(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및 '공감'에 의한 질서(정의화)를 일반적 규칙으로 설정하면서, 다원주의적 권력 분산의 생리를 통해, 즉 '국제'(the constitution)를 옹호하는 방식을 통해 근대국가의 주관적 통합이념을 제약하고자 하는 방법이었다.
- 4) 김복순, 「식민지 문학의 전유와 근대문학 상상의 인식장치」, 『여성문학연구』 제33호, 2014, 227~228쪽.
- 5) 김미정은 서구 근대가 세계를 단일한 시공간으로 연결한 것은 세계를 제패한 유럽 문화의 우월한 능력 때문만이 아니고, 이질적인 유럽 문화에 자신을 개방해 그것을 수용한 '비유럽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결을 거슬러 역사를

로 일본의 반제국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인 코토쿠 슈스이(幸徳秋水)⁷⁾의 수용을 들 수 있는데, 『황성신문』은 1906년 코토쿠 슈스이의 「장광설」을 번역·소개하였으며, 신채호와 변영만의 아나키스트 수용 및 제국주의 비판도 코토쿠 슈스이와 연관성을 지닌다.

'최초의 서양발 사회사상'이라 일컬어지는 사회진화론의 경우도 두 종류가 있었다. 수용태도에 따라 달라졌는데, 중국의 옌푸·량치차오 계열의 신채호·박은식·이혜조 등과,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등은 다른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전자가 도덕적·윤리적 사회진화론 계열이라면, 후자는 반전통주의적·제국주의적·국가주의적 성격을 띤다.⁸⁾ '선 국민국가 수립'(전자)인지 '선 문명개화'(후자)인지의 '우선성'에 따라 사회진화론의 개념은 달리 수용되었으며, 따라서 계몽의 내포

출질(벤야민)하고자 할 때, '차이를 협상'하며 자신을 새롭게 조형해 가는 '타자와의 조우'의 역량인 '비유럽적 역량'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김미정, 『차이와 윤리: 개화주체성의 형성』, 소명출판, 2014, 6~7쪽. 하지만 '차이의 관계'가 '같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요청되는 관계'(441쪽)인지는 의문이다.

- 6)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이선경, 「한국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보편성의 재구조화 양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4 참조.
- 7) 『二十世紀之怪物帝國主義』(1901) 등의 저서가 있으며, 1900년대 중반 최초로 수입된 후 1920년대 변영만에 의해 번역된다. 변영만은 조선의 학자 중 제국주의에 대해 최초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한 인물이며, 신채호 홍명희와 두터운 친구 사이였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식민지 문학의 전유와 근대문학 상상의 인식장치」, 『여성문학연구』 제33호, 2014, 제3장 참조.
- 8)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양육강식을 인간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느냐의 여부이다. 전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면서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이 있다고 본 반면, 후자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자본주의적 양육강식의 논리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 하는 이론으로 전개되지만, 전자의 경우 인간의 윤리적 가치와 능동적 노력을 중시하면서 자강, 자력, 자주, 진보 등을 강조한다.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스펜서주의 진화론과 달리 '윤리'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둘의 차이는 1910년대 이광수·백대진/현상윤·양건식의 차이로 귀결된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식민지 문학의 전유와 근대문학 상상의 인식장치」, 『여성문학연구』 제33호, 2014; 우남숙, 「사회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10권 2호, 2011, 139쪽;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계보」, 『한국학연구』 32집, 2014, 177~207쪽 참조.

도 각기 달라지게 된다.

신소설에는 사회진화론 사상이 폭넓게 수용되어 있는데, 어떤 진화론 사상을 보이고 있었는지 미시적으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인정하면서 자강·자력·자주를 우선성으로 내세웠는지, 선 문명개화를 부르짖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 양육양식의 논리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 하는 이론으로 나아갔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전자를 '비서구적 보편', 후자를 '서구적 보편' 범주로 배치한다. 물론 이 둘이 미분화 상태로 교집합을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우선성'의 내포에 따라 분리가 가능하다. 우선성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기계적인 이분법을 피할 수 있다. 인간의 주체적 능동성을 인정하면서 자강을 우선성으로 내세울 경우 '선 독립론'으로 나아가게 되며, 제국주의적 침략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바탕인 '서구적 보편'을 부정하게 된다. 반면 '선 문명개화론'의 경우 자본주의 및 제국주의 논리에 포섭되면서 '서구적 보편'을 수용하게 된다. 신소설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새로운 담론양식으로서 '새로운 보편'에의 충동을 보이면서, 계몽의 방식을 경계짓고 정의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죄' 개념도 분화하기 시작한다. '공동체 구성원리'로서의 '죄'는 19세기 이전에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동양에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죄는 범죄(crime), 범죄의 형벌(punishment), 죄(sin)가 모두 동일한 용어인 죄(罪)로 표현되었다. 그러던 것이 근대 초기에 들면서 윤리적 개념으로서의 죄(sin), 기독교적 의미의 '원죄'(original sin), 근대적 법 개념에 따른 범죄(crime)의 개념으로 분화된다.⁹⁾ 법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 즉 '유죄'는 윤리적 의미의 죄(sin) 및 기독교적 의미의 원죄(original sin)와는 매우 다르다. 법적으로 무죄라 함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법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과 윤리적 도그마에 근거해서 행위하는 '윤리적 인간'은 서로 다르다.¹⁰⁾

신소설 중 범죄서사(detective narrative, crime story)가 72% 가량¹¹⁾이나 차지한다는 사실은 신소설이 죄를 어떻게 담론화 하는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범죄 서사란 '질서 속에 드리워진 무질서, 무질서 뒤에 따른 질서, 합리성을 전복시키는 비합리성, 비합리적 소란 후에 회복 되는 합리성'¹²⁾을 이데올로기로 가지기 때문에, 신소설이 패러다임화하고자 하는 질서·정의·합리성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이란 '죄'를 명명하고 개념화 한 것으로서, 한 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다. 법은 한 사회의 보편적 믿음 체계를 의미하며, 사회가 나아가갈 방향을 '정하면서'(making) 스스로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부여한다.¹³⁾

새로운 양식으로 부상한 신소설이 정의·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념·계급·젠더·신분별로 '누구'에게 어떤 '죄'를 부여하고 의미화 하는지, 그 결과 신소설이 계몽하고자 한 내포가 무엇인지는 신소설의 성격 및 젠더와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법적 개념으로서의 죄를 초점화 하여 형상화한 소설은 『고의성』 『행낙도』 『벽부용』 『소양정』 등 소수에 해당하며, 범죄를 다루는 나머지 신소설은 모두 윤리적 의미의 '죄'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그간 신소설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깊이 있게 진척되어 왔으나 주로 선/악이라는 권선징악 구도에서 접근하였지, 권선징악과 관련한 계몽의 구도가 어떤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주조하고 있으며, 그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죄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정의 및 죄의 젠더가 무엇인지는 거의 고찰하지 못하였다. 신소설 양식은 특히 '여성소설'¹⁴⁾이라 불리기 때문에

10) 알랭 쉬피오, 『법률적 인간의 출현』, 박재성·배영란 역, 글항아리, 6쪽.

11)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참조

12) 에르네스트 만델, 『즐거운 살인-범죄 소설의 사회사』, 이동연 역, 이후, 2001, 81, 85, 91쪽.

13) 알랭 쉬피오, 『법률적 인간의 출현』, 박재성·배영란 옮김, 글항아리, 7~8쪽.

9) 이유나, 「초기 한국 개신교의 죄 개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138쪽.

정의 및 죄와 관련하여, 어떤 국민국가 패러다임 하에서 여성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정치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기존 연구에서는 신소설을 지배하는 원리를 일상성으로 보면서, 신소설과 일상성을 동시에 지배하는 원리를 '근대적 법'이라 보았으나,¹⁴⁾ 전자는 타당성이 있으나, 후자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신소설 중 '범죄 서사가 72%'라 했을 때, 이때의 범죄가 반드시 '법적'으로 해석·처리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죄로 보는 경우, 또 윤리적 도덕적 죄이자 동시에 법적 죄로 보는 경우,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죄라 하기 어려우나 법적으로는 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가 신소설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아비의 사랑을 독차지 하기 위해 투기를 부리거나 첩을 확대하는 본처는 당대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다. 또 하인이 주인을 위해,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남편을 위해 복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니다. 실제로 신소설에서 '죄'로 '언명'되거나 '해석'된 행위가 모두 '법적 처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을 분리해 다룰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계몽의 내용 및 정의·죄를 개념화 하는 방식에 두 가지가 있음을 제시한다. 하나는 '이것이 ***(예:문명개화)이다'라고 해당 개념에 대해 지시하면서 '지정'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은 **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통한 반정립'의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차이는 지향점, 즉 '서구적 근대' '서구적 보편'을 지향하는 경우와 '비서구적' 근대,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 다르게 '선택'되는 경향을 보이며, 미학적으로도 차이를 드러낸다.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차이가 계몽의 내포 및 방식의 차이를 정향화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14) 이에 대해서는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참조.

15) 이지훈, 「신소설에 나타난 법과 일상성의 의미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8쪽.

2. '서구적 보편'으로의 재편과 '여성의 죄'의 제 양상

2.1 무력한 모성

신소설이 부정적으로 주목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모성이다. 모성은 '무력 하거나' '무지' '잘못된 일을 만드는' '일하지 않는'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대개 '부정을 통한 반정립'의 방식(이것은 문명개화가 아니다)을 통해 제시된다. 『혈의루』 『소양정』 『금의 쟁성』 등에 나타난 모성이 그 예이다. 『소양정』은 딸을 지키고자 정혼자 사위감을 모해하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고, 『금의 쟁성』에서는 자식들이 배고파 사경을 헤매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부인네에 대해 동네 젊은 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제시한다. 갑오경장으로 시대가 변했으나 '다만 구레가 복구되 기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이참봉의 아내인데, 여기서 보듯 무력한 모성들은 대체로 '완고' '구레'와 연결되어 있다.

『혈의루』에서는 청일전쟁으로 가장 먼저 짓밟히는 대상을 모성으로 형상화 한다. 신소설 중 최초의 문제작으로 지목된 『혈의루』가 가장 확실하게 타매한 것은 모성이다. 『혈의루』 연구는 그간 구완서와 옥련의 개화의 지만 강조하느라('지정'의 방식, 예: 이것이 문명개화이다) 모성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못하였다. 하지만 소설의 시작과 끝이 '모성'으로 위치지어 졌다는 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장면을 보자.

일청전쟁의 흉소리는 평양일경이 썩어가는 듯하니 그 흉소리가 굶치미 사람의 주취는 쓰너지고 산과 들에 비린 썩을 뿐이라

평양성 외 모란봉에 썩어지는 저녁벗은 누엿- 너머가는디 저 히빳을 붓 드러 밧고 시푼 마음에 붓드러 밧지는 못호고 숨이 턱에 단드시 갈팡질팡 호는 호 부인이 나히 삼십이 되락말락 호고 얼굴은 분을 싸고 년드시 힌 얼 골이는 인정업시 쓰겁게 누리 쪼히는 가을벗에 얼굴이 익어서 선잉의 빳이 되고 거름거리는 허동지동 호는디 옷은 흘러느려셔 젓가슴이 다 드러누고

치마뜨락은 짜헤 질질 썰려서 거름을 건넌디로 치마가 발피니 그 부인은 아무리 급흔 거름거리를 허더리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허둥거리기만 한다
 남이 그 모양을 볼 지경이면 저렇게 어여썬 절문 녀편제가 술 먹고 횡길 에 누워서 주정한다 홀터이나¹⁶⁾

젓가슴이 다 드러나고 치마자락이 밟혀 거의 미친년처럼 인사불성이 된 옥련 어머니의 모습은 위 인용문의 뒤로도 12페이지나 지속된다. 옥련 어머니는 이후 '금치산자'처럼 정신을 잃고 자기 집에 유폐된다. 유의해 살펴볼 지점은 서술자가 옥련 어머니가 '무죄히 죄를 받'는 것이라 언급하는 부분이다.

피란군들은 나라의 운수런가 제 팔죽 기박하야 평양 빅성 되앗던가 쌍도 조선 쟁이오 사름도 조선 사름이라 식우 싸흠에 고리등 터지드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흠에 이럿케 참혹흔 일을 당흔는가...(중략)...평양 빅성의 윤통하고 셔른 소리가 아닌가 무죄히 죄를 받는것도 우리나라 사름이오 무죄히 목숨을 지키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름이라 이것은 하늘이 지호신 일이런가 사름이 지흔 일이런가 아마도 스름의 일은 스름이 진는 거시라 우리나라 스름은 제 몸만 위호고 제 욕심만 채우려 호고 남은 죽던지 스던지 나라가 망호던지 흥호던지 제 벼슬문 잘 호야 제 살만 싸우면 제일로 아는 스람들이라¹⁷⁾ (밑줄은 필자가 하였음)

피난민들은 자신의 '팔자'가 기박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운수'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면서도, 작가는 이들이 고통 받거나 희생당한다고 서술하지 않고 분명히 '죄'를 받는 것으로 언급한다. '무죄히' '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죄는 법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라, 통합적 개념으로서의 '죄'이다. 이후 인용된 문장에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욕심만 채우고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받는 죄(벌)인 것이다. 무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 욕심만 채우려'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무죄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언표한다. 작가는 무죄히 죄를 받는 대표적 인물로 '옥련의 어머니'를 설정함으로써, 평양 백성과 피란군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죄를 받는 대상을 '모성'으로 위치짓는다. 옥련의 어머니가 제 욕심만 채우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유독 옥련 어머니만 '특정'하여 '죄인'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또 결말 부분에서 옥련 어머니는 옥련이라는 딸에 의해 명백히 '보호받아야 할' 인물로 자리매김 된다.

옥련이가 어머니를 리별호고 섭섭하야 호는 모양이 실성을 할 것 갓흔지라...(중략)...작별호더니 얼굴에 근심빋 쏘니라...(중략)...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 잇는디 어머니 혼즈 우리나라로 가시느고나...(중략)..우리 어머니가 평양성 중에서 십연 동안을 근심 줌으로 지느시고 또 혼즈 평양으로 가시느구는. 나를 싱각호시느라고 병환이나 안이 놀가.¹⁸⁾

모녀가 이별한 후 상대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옥련 뿐이다. 옥련 어머니도 옥련을 이국 땅에 남겨 두어 걱정될 터이지만, 옥련 어머니가 걱정하는 모습은 서술되지 않는다. 오직 옥련만이 어머니를 걱정한다. 어머니 세대는 이제 딸의 세대에게 개화의 주체로서의 자리를 물려 주고, 딸에 의해 보호되는 세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처참하게 옥련 어머니를 묘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인직은 세대론의 입장에서, 구완서와 옥련의 시대를 열면서 부모인 옥련 어머니와 김관일의 시대를 타매하는 것이다. 이들을 '젊은 내외'라 칭하고 있지만, 청일전쟁을 포함한 당대의 제 문제를 부모 세대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세대 분리와 모녀 분리가 행해지면서, 구완서는 '문

16)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3쪽.

17) 이인직, 『혈의루』, 광학서포, 1907, 12쪽.

18) 이인직, 『혈의루』, 『제국신문』 1907.6.1.

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뻑 같은 마음'으로, 옥련은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와 동등권리를 갖게 하며,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도록' 할 남녀로 배치하면서 세대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부모 중에서도 유독 모성만을 강조하여 타매한다는 점이다. 김관일은 원래 '평양서 돈 잘 쓰기로 이름 있는' 인물로서, 가장이나 지아비로서는 결격인 인물이다. 그는 아내가 일본 헌병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도 '헌병에게 붙들려 가는 줄'로 알고 집안에서 몰래 내다만 보고 밖에 나가 자초지종을 묻고자 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제 몸만 위하고 제 욕심만 채우려 하고 남은 죽든지 살든지'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겉이 나' 아내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또 '평양 백성은 어디 가서 사생 중에 들었고, 우리 처자는 어떻게 되었고' 걱정하면서도 아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이 뜻이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구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 일을 못하는지라'면서, 붙잡혀간 아내와 잃어버린 딸을 찾을 생각은 전혀 없이 장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간다.

『혈의루』는 가장으로서도 지아비로서도 결격인 김관일은 비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에 뜻 있는 남자'로 '내 나라 사업' 현장에 투입한다. '남성'을 비난·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임화가 '조선의 오블로모프'라 지적했던 바, 신소설이 창조한 최대의 인간형¹⁹⁾인 『귀의성』의 김승지²⁰⁾를 비롯하여 신소설 전반에서 목격되는 지점이다. 대체로 남성 주인공들은 가장으로서 지아비로서 무책임하고 결격이어도 비난받지 않으며, 대체로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다.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도 여자의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처리한다. 남성은 수동적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일 뿐 적극적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옥련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머니로서, 지어미로서 어떤 결격 사항이 있는지 전혀 일언반구도 없이 '미친년' 형상의 '죄인'으로 서술한다.

이러한 성별 배치는 『혈의루』가 부성은 배제하지 않고 모성만 타매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주체 배치를 확인시킨다. 임화도 김승지를 예로 들며, 이러한 인물유형이 '끝까지 산 인간이었음은 특필할 가치가 있다'²¹⁾고 언급한다. 성별 배치의 담론적 성격을 평가한 말로 이해된다.

당시에는 여성론 가운데 '현모'론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모란 '근대 국민국가'를 이끌 '아이'의 교육 담당자로서이지, 여성 자신은 아니었다.²²⁾ 전쟁통이기는 하지만 자식 교육 담당자이기는커녕 자식을 잃어버리고 찾을 방법도 구하지 못하는 옥련 어머니는 결코 현모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2 비'자유연애'자 본체

신소설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본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곳간 열쇠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부장적 가(家)제도 하에서 첩보다 월등히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체들은 끈직한 패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신소설에서 처첩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으나, 본체의 형상은 극악하고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을 보인다. 본체들의 투기는 한 가문의 경제적 주체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서라기보다 '사랑의 주체'가 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애정이나 사랑에 기반한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성을 지닌다.

19) 임화, 『개설 신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출판, 2009, 204쪽.
20) 『귀의성』에서 김승지는 내적으로 임명받아 가면서 첩인 길순(아이 잉태)에게 일언반구 아무 언질 없이 떠난다. 길순이 그 아버 강동지와 함께 서울 김승지의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도 제대로 일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계동 박참봉 댁에 머물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21) 임화, 앞의 책, 204쪽.
22)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신소설은 왜 첩의 모해보다 본처의 폭력적 투기를 선호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의성』의 김승지 부인, 『세검정』의 김승지 부인, 『원앙도』의 안경지 부인 등이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첩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첩과 그의 소생들을 청부살해하기까지 한다. 이들의 악행은 소설이 전개되면서 결국 들통나고 결말부분에 이르면 집에서 쫓겨 나가거나, 죽거나, 남편의 애정을 잃는다.

『귀의성』에서 김순(춘천집, 강소사) 모자의 죽음 및 김승지 부인의 죽음은, 김승지 부인의 투기와 살해 모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승지 부인은 김승지가 첩을 두었다는 소문만 듣고도 '열길 스무길을 뛰'던 사람으로서 춘천집의 가마가 올라왔다는 말을 듣고는 '무당년의 소리같이 씩씩하고 시원하게 '폭포수 쏟아 놓듯 거침새 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마루청이 쪼개지도록 발을 구르고 명창 광대가 화용도 상성 지르듯' '내가 저년부터 쳐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다' '내가 그녀의 대강이를 깨뜨려 놓겠다'고 내치른다. '춘천집은 이 방에 두고 나는 부엌에나 내려가 밥이나 지으마'라는 말에서 보듯 기득권에 위협을 느낀 점도 없지 않으나, 서술자는 남편의 첩질에 희생당하는 본처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원래 화산에 불 일어나듯 하는 성품'인데다 '구기(궁리) 잘 하기로는 장안 여편네 중 제일 가는' 김승지 부인은 투기와 폐약, 욕설에 교사죄까지 범하고 만다. 본처의 투기는 침모까지 의심할 정도로 번지고, 서술자의 설명에 의해 과도한 투기로 의미지어진다.

반면 춘천집은 마치 군자의 호구처럼 요조숙녀로 형상화된다. 본처와 정반대이다. '비록 상사람이나 행실이 있던 계집'이고, 아무에게나 시집가라는 어미의 말에 '상년이라도 두 번 세 번 시집가는 싫다'고 주장하면서 정조 이데올로기를 실천한다. 김승지에게 애정이 있어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양반 계급 부녀들의 불사이군을 모방한 측면도 있다. 오히려 춘천집은 본처 '주먹 안에서 사지를 꿈작 못하고 있'는 김승지를 동정하면서, 자신을 계동 박참봉 집으로 잠시 옮기게 한 것도 영감이 무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누라 투기에 겁내서' 라고 해석한다.

본처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 및 첩에 대한 긍정적 형상화는 마치 '첩의 복권'을 설파하는 듯하다. 서술자는 김순으로 하여금 '첩'이라기보다 '인간 김순'으로 정체성을 지니도록 유도하면서, 자신은 김승지를 좋아한 것밖에 없다고, 김승지에게 정이 있으니 본처에게 핍박받아도 좋다고 되뇌이게 한다. 즉 '사랑' 때문에 받는 핍박(수난)은 일견 행복하고 정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 죄도 없'는 '죄 없는 김순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첩의 복권'에 한걸음 다가서는데, 이러한 시선은 사랑 및 결혼의 주체성을 강조한 개화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김순에 대한 긍정적 형상화는 당대에 '위첩 변호(爲妾辯護)'라 비난받은 바

...오호라 리인직씨여..이제 리씨가..다만 모리하는 소견으로 첩을 위하여 변호하는 귀신의 소리라는 소설 등을 저술하여 사회상에 도덕을 해롭게 하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혼미케 하여...²³⁾

이러한 주장은 이인직의 새로운 담론을 향한 추동이 당대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김승지 부인은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내 방에 와서 몸을 녹이시'라는 등 온갖 애교를 다 동원하지만 김승지가 본처와 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본처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무지막지한 투기를 무마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세상에 고생 치고 시앗 두고 근심하는 고생'은 없다든가, '죽박을 차더라도 시앗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손으로 마느질품을 팔아 먹더라도 영감과 나 단 두 식구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본처는 달리보면 구식 결혼제도 때문에 사랑의 주체가 되지 못한 희생자에 속한다.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주체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앙도』에서 안경지 부인도, 남편이 단지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지인의 딸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집으로 데려 온 것에 불과한데, 애정을 빼앗길까 투기하

23) 논설 『연극장에 독감이』, 『대한매일신보』, 1908.11.8.

여 팔아 넘기려 했던 것이다.

점순의 궤에 속아 춘천집 모자를 교사한²⁴⁾ 김승지 부인은 결국 강동지의 칼날에 무참히 살해된다. '너를 탐내 들어 왔다'는 강동지의 전략에 김승지 부인은 몸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귀의성』의 본처는 '개잡년' '썩부인이라도 너같은 뺨때부인은 없겠다'는 강동지의 욕설을 들으면서 무참히 죽는다. 깨끗한 척 하던 양반댁 본처가 상말, 욕설, 품행의 상스러움, 투기, 교사죄 및 애정·사랑의 주체되지 못한 '죄'와 함께 날날이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처벌의 사유는 이들 본처들이 당시 요구되던 '현모양처', '제도로서의 주부'론과 매우 다른 행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당대의 현모양처론과 주부론에서 말하는 '양처'와 '주부'는 가정 내적 주체로서 사랑의 주체여야 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사회가 요구한 여성론의 주류는 여성 개인의 권리나 자유보다 국민국가 수립과 관련한 남성의 여성지배가 우선성이었으며, 현모론과 현모양처론, 제도로서의 주부론은 그 논거로 활용되었다. 여성은 가정의 관리자(주부) 및 1차 통제자의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사적 주체 및 공적 주체로 위치지어졌지만 남성의 여성지배를 우선성으로 하는 기본틀 속에서였다.²⁵⁾ 서양에서도 사랑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17세기에 이르러서였고, 본처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화목을 위해 존재하는 자여야 했기 때문에²⁶⁾ 본분을 망각하고 애정투기나 일삼는 '아내'들은 결격사유를 지닌 자들으로써 죄인으로 처벌되었다.

24) 토론과정에서, 춘천집은 죄가 없음에도 죽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춘천집은 소설 결말부분에서 '귀의성'으로 '부활'한다. 따라서 춘천집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소설의 제목인 '귀의성'은 바로 춘천집의 '부활의 목소리'일 뿐만 아니라, 첩 제도를 비판하는 바 개화의 취지와도 연결된다.

25)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르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17호, 2007.

26) 매릴린 엘름, 『아내의 역사』, 이호영 역, 책과함께, 2012, 5장 참조.

2.3 개인적 욕망 추구자 악비(惡婢) · 첩 · 무당

『귀의성』이 사랑의 주체일 수 없었던 본처를 '투기'로 몰면서 죄인이라 지목하였다면 여기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사랑의 주체가 되거나 뛰어난 경제적 능력으로 살 길을 도모하는 첩 또는 악비를 죄인으로 형상화 한다. 요약하지만 피많은 『만인산』의 첩 해주집, 『박정화』의 00집(『산천초목』에서는 강릉집), 『황금탑』의 색주가 작부, 『귀의성』의 점순, 『치악산』의 옥단, 『구의산』의 삼취부인 이동집, 본처를 축출한 후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빈상설』의 첩 평양집, 『유화우』(『불여귀』의 변안)의 시종 춘섬, 무당이라는 신분을 동원하여 양반댁 가산을 탕진시키는 『구마검』의 무당 금방울은 자신의 신분상승과 축재, 성적 욕망을 위해 개인적 욕망을 불태우면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인물들이다. 『박정화』의 00집은 여성의 성적 욕망을 충실히 좇는 인물로 제시되어 있다. 처음에는 부모 봉양을 위해 기생이 되었지만, 신마마의 소개로 이시종과 만나 후에는 그와 함께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살림을 차리게 된다. 하지만 이시종의 배신으로 자신의 욕망은 물거품이 되고, 다시 박참령에게 돌아가지만 끝내 뒷방 소실로 주저 앉게 된다. 『화상설』에서 권참판의 첩 평양집은 재취부인 유씨를 괴롭힐 뿐 아니라 또 다른 첩 진주집을 살해하고 유씨 부인의 딸 애경을 기방에 팔아넘긴다. 양자인 영철도 죽이려 하나, 외삼촌에 의해 모든 것이 들통나 법사로 압송된다. 평양집의 악행은 부(물욕)를 독차지하려는 데서 발생한 것이다. 『구의산』의 이동집은 자기 아들을 적자로 만들어 재산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 적자인 오복을 신혼 첫날 밤 '목 없는 시체'로 만들어 죽인다. 이동집은 삼취 부인으로서 첩은 아니지만, 첩과 마찬가지로 처지로 그려져 있으며, 자신의 죄가 탄로나자 어미를 잃은 자식의 삶이 의미 없다면서 아들 또복이마저 죽이려 한다. 『구마검』의 금방울은 무당곳에 심취한 삼취부인 최씨, 최씨부인에게 둘러싸여 온전한 판단력을 보이지 못하는 함진해를 거뜬히 속여, 천연두에 걸린 아들을 치료하는 기회마저 놓치게 할 뿐 아니라 재산마저 모두 탕진케

한다. 악비와 첩이 축첩비판이라는 개화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형상화 된 경우라면, 『구마검』의 무당은 무속적 세계관과 합리적 세계관을 미개/개화, 악/선으로 배분하면서 무속적 세계관을 타자화 하고 있다. 금방울과 임지관이 당시 왕실이란 권력층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²⁷⁾을 언급함으로써 봉건체제의 말기적 증상을 강조하였으나,²⁸⁾ 양반의 부를 탐하는 하층계급은 모두 사기꾼인양 편향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급적 시각을 노출시키고 있어, 진정한 개화와는 거리를 드러낸다.

이들 악비와 악첩, 무당들은 모두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거나 남자에게 버림받고 삶의 터전에서 추방되는 방식으로 처벌된다. 『귀의성』의 점순은 간교하고 요악하며 여우같다고 표현된 인물로서, 김승지 부인을 이용하여 양반집 재산을 모두 자신의 뜻대로 가로챈다. 양반댁 노비로 한 평생 지내면서 얻은 상처는 너무 커서

점순이가 그 부인 압해서 즈라날 썩에 더강이는 즈로 어더맛너라고 마치 돌갓치 구뎃고 마음은 하로 열두번식 편잔과 꾸지람 듯기에 졸업을 히서 여곤 꾸지람은 드러도 드른 듯 시푸지 안이흐 점순이라²⁹⁾

노비 신분이라 당한 핍박은 점순으로 하여금 신분상승을 욕망케 한 원인으로 처리된다. 양반층의 이념이나 삶의 규율 등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점순은 양반층 여성들이 지키고자 애썼던 정조 이데올로기마저 쓸모 없는 것이라 판단한다.

강씨는 엇더흐 빌어먹을 년이 강씨를 호고 잇서 나는 순돌 아버지가 다른 계집의게 맞쳐 낚썬는 거슬 보면 나는 다른 셔방 어더 가지 밤낫 계절계절 호고 잇슬 망헌년 잇나³⁰⁾

27) 임화, 앞의 책, 315쪽.

28) 최원식, 『이해조의 문학연구』, 『한국근대소설사론』, 창비사, 1986, 97쪽

29) 이인직, 『귀의 성』, 광학서포, 1907, 89~90쪽

정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남녀가 애정에 의해 결합해야 한다는 개화의지가 드러나 있다. 성적으로는 자유분방하고 계급적으로는 신분상승을 욕망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점순은 상전인 김승지 부인을 맘껏 활용한다. 두뇌회전도 뛰어나 춘천집 모자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게 진행해 나간다. 춘천집 모자는 점순의 치부와 신분상승이라는 해방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귀의성』의 상편 중반부터 작품을 추동하는 인물은 단연 점순이다.

그밖에 특출한 피로 한주사의 가산을 모두 차지하는 『만인산』의 해주집, 양녀가 친녀 모자를 박대하고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는 『춘몽』의 서금선, 다른 남자와 사랑의 도피를 하고 본부를 독살하려 모의하는 『박정화』의 00집 등도 점순과 비슷한 인물 유형이다. 『귀의성』의 점순은 남편과 아이도 버리고 이익만을 좇고, 『치악산』의 옥단은 남편의 죽음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의 면천과 축재를 위해 상전의 단물을 빼는 데만 골몰한다. 『박정화』의 00집 역시 뜨거운 불륜으로 애욕은 성취하지만 그로 인해 박참령 집안이 파탄 나고, 배신으로 인해 한 남자의 구만리같은 전정이 망가지는 데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가문이나 사회, 민족이나 국가, 타인은 허울일 뿐인 것으로 그려진다. 개화의 취지에는 부합해 살렸으나, 식민지화의 위기 국면에서 당대의 공통감각에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처벌한 것이다. 임화의 지적을 빌려 말하자면, 구세력의 몰락을 그렸다고보다 새롭게 사회적 주체로 소환되어야 할 주체들이 무참히 유린당하는 '수난'의 역사를 보이는 바, '역설'의 지층을 제시한다.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고자 한 신소설의 경우 신분타파·계급타파보다 공동체적 질서를 더 우선성으로 취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의 공통감각을 뛰어 넘을 정도의 개화의 취지는, 특히 '여성'의 경우 '죄'로 처벌함으로써 리얼리티의 균형을 취하고자 한 작가들의 담론적 경계를 확인시킨다.

30) 이인직, 『귀의 성』, 광학서포, 1907, 68~69쪽

신분 타파, 계급타파, 애정에 의한 남녀결합, 개개 허용 등 개화의 방향이 거의 다 성취되고 있지만 작가들은 이들을 끝까지 변호하지 않고 '처벌'하는 결말을 택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공동체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구가하지만 공동체적 질서와는 무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사회' '국가'는 없고 오직 '개인'적 논리·사유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개화의 취지에는 부합해도 이들이 죄인으로 배치된 이유는 자신의 욕망의 잣대로만 세계를 판단하고, 행동할 뿐 '문명개화' '사회' 구축이란 지향점에는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특히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노비·첩들은 신소설에서 아직 '정의의 타자'에 불과했다. 계급타파를 부르짖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의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되고 허위·악·비합리성·비정상이란 이름하에 억압되어 있었다. 이는 '서구적 보편' 추동 패러다임이 '계급' 범주와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여성 중에서도 '타자'였던 첩·하인·무당들은 개화의 취지와 부합해도 '정의의 타자'로 설정되어 처벌받는 방향으로 배치된 것이다. 이처럼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신소설의 '정의의 원칙'은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었다. 정의의 원칙과 정의의 타자 사이에는 이처럼 배제와 억압이라는 위계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³¹⁾ 서구적 보편 추동 신소설의 경우 이 위계적 관계는 '계급' 범주로 표출되어 있다.

2.4 복수하는 여자

복수는 소설의 주된 테마 중 하나이지만, '여성의 복수'는 신소설 이전에서는 보편화된 주제가 아니었다.³²⁾ 복수는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신소설에 이르면 '여성의 복수'가 폭넓게 제시되기에 이른

다. 복수의 동기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며, '여성의 복수'는 여성이 직접 행위주체가 되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며, 해방의 표현이기도 하다. 복수에는 정당한 복수와 부당한 복수가 있다. 『치악산』의 금홍이, 『구의산』의 애중, 『검중화』의 장봉희, 『동정추월』의 설자, 『회의 혈』에서 모란의 복수는 '정당한' 복수에 속하고, 최찬식의 『능라도』에서 악인 서모가 자기 아들의 죽음에 복수하는 행동은 부당한 복수에 속한다.

소설의 결말 부분에서 전자는 정의와 공리의 차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만, 후자는 '부당한' 사적 징벌로서 처벌받는다. 전자에서도 사적 징벌의 폭력성이 문제되기는 하지만, 이때의 폭력은 악인들의 죄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즉 엄격한 법적 잣대로는 '죄'에 해당하지만, 공적인 '법'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직 '법적 죄' 개념이 온전하게 실행되기 이전 단계의 모습을 드러낸다.

『치악산』의 금홍이, 『구의산』의 애중, 『검중화』의 장봉희, 『동정추월』의 설자는 '복수하는 여자'들이다. 『치악산』의 몸종 금홍이는 이씨부인이 치악산에서 내쫓긴 사정을 듣고 남장을 하고 복수를 계획한다. 귀신 장난을 벌여, 이씨부인을 내쫓은 후실 시어머니 김씨부인과 악비 옥단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 하지만 금홍의 복수는 '주인에 대한 의리'라는 가치준거에 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개화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치악산』은 개인적 욕망이라는 가치준거를 그린 악비 옥단을 근대적 주체로 형상화 하였고, 금홍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부각하지는 못하였다.

『치악산』의 금홍이 남장을 하고 복수를 한다면, 『검중화』의 장봉희는 복수해 줄 기개 있는 다른 남자를 기다린다. 『구의산』의 애중은 신흔 첫날 밤 신랑이 목없는 시체로 발견되자 오해를 벗고 복수하고자 남복을 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남장을 해야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성이 아직 단독자로서, 개인주체로서 복수의 주체는 '아남'을 알려 준다.³³⁾ 남장은 '해결자'로서의 '여성 주체성'을 일부만 허용하는 시선이기 때문이다.

31) 약셀 호네트, 『정의의 타자』, 문성훈 외 역, 나남, 2009, 11쪽.

32) 이경미,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중국학』 제38집, 2011, 173~204쪽.

『동정추월』(민준호 작, 청송당, 1912, 번안)은 '복수 모티브'가 핵심적이라는 점에서 다른 소설들과 차별화 된다. 『치악산』이나 『검중화』 『화의혈』에서 복수 모티브는 단 하나의 핵심 모티브가 아니었다. 복수 모티브는 다른 신소설에도 빈번히 등장하나 이 소설에서처럼 핵심 골격을 이루지는 않는다. 도둑한테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설자가 그 복수를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해결한 후 자살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도 여성의 몸으로는 도둑을 찾기 어려워 남장한다. 도둑들을 관가에 고발하면서 법적 처벌과 개인적 복수를 모두 성취한다. 하지만 '여성의 복수'는 자살하지 않으면 안 될 '유죄'로 처리된다. 즉 여성의 '사적 복수' 자체가 '공적 처벌'을 함의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신소설은 남성의 복수는 인정하면서도 여성의 복수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남장을 하거나, 대리자를 통해 복수한 여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직접 복수의 '주체'로 부상한 경우에는 처벌받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복수의 동기가 인정된다 해도 '주체적 여성' '강한 여성'은 더 이상 기존 사회로 재편입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귀의성』의 강동지(남성)는 딸 춘천집 모자의 죽음에 복수하기 위해 그 일에 관련된 자들 즉, 점순 내외 및 김승지 부인을 끔찍하게 처단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 애초에 길순이 김승지에게 팔려 간 것도 강동지가 길순이를 '돈 덩어리'로 보았기 때문이다. 강동지 부인은 소설 전반부에서 길순을 돈 덩어리로 보는 강동지를 반복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동지는 처벌받기는커녕 '옳은 일(정의)'을 실천한 소영웅으로까지 확장된다. 하지만 '여성의 복수'는 '자기실현'³⁴⁾, 정의실현 등 긍정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가정에 국한된 '사적'인 것으로 의미화 되었을 뿐 아니라 자살이라는 처벌까지 하고 있다.

『화의혈』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복수하는 여자가 정당성도 지니

33) 남장과 관련해서는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312~335쪽 참조.

34) 岩井智子, 『復讐の 社會學: 女たちの場合』, 三元社, 1997.

고, 처벌도 받지 않는 '개연성'을 보여 준다. 모란은 아편을 먹고 자살한(기생이 된) 언니 선초의 복수를 감행한다. 선초는 정실부인으로 맞이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받고 몸을 허락하나, 이시찰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자살한 터였다. 동생 모란은 이시찰이 참석한 주연에 기생으로 참여하여 이시찰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이미 수뢰혐의로 패가망신 지경에 이른 이시찰을 철저히 몰락시킨다. 모란은 계교와 지략으로 이시찰에게 완벽하게 복수한다. 『화의혈』은 언니를 위한 동생의 복수, 여성을 위한 여성의 복수라는 점에서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전 소설에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의 복수가 그려진 바는 거의 없다. 또 『화의혈』은 여성의 복수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당한 복수 주체로서의 여성은 판단 주체로서의 여성, 행동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작자 이해조가 『화의혈』 발문에서 '실지사적'보다 '빙공착영'을 강조하면서 '개연성' 및 '재미'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은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이 복수하는 여자를 '주체'로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복수하는 여자는 '실지사적'이 아니라 '빙공착영' '개연성'일 뿐이다.

3. '비서구적 보편'의 추동과 '여성의 죄'의 부재

『라란부인전』 『애국부인전』 등의 여성 영웅 전기는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면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드러낸 경우이다. 이들 소설은 '지정'의 방식(이것이 문명개화이다)으로 여성 영웅을 제시하지만, 결국 애국부인과 라란부인은 처형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들은 유사-남성(pseudo-male)으로 행동하며 남성 언어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애국부인 잔다르크는 자국군이 아닌 영국군의 포로가 되어 화형당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처벌'이 가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지연은 작품 말미에서 잔다르크와 같은 애국 충의의 여자가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저술동기를 드러내지만, 남성 주인공의 경우와 같이 살리지는 못한다. 라란부인의 경우도 남편이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내조하지 못한 '죄'를 물어 처형시킨다.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 '여성 영웅'일지라도 '죄인'으로 처벌된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경우가 신소설 『소금강』(빙허자 작, 1910, 『대한민보』 연재)이다. 『소금강』은 비서구적 근대를 추동하는 당대의 매우 이색적인 서사를 보여 준다. 『소금강』은 '새로운 정의'로 '권도'를 제시한다. '권도'(權)란 '평상시에 준수해야 하는 도덕질서' 즉 '보편적 도덕 준칙'인 경(經)이 형세가 바뀌면서 도덕적 행위가 급박하게 실행되는 데 바로 이러한 '특수한 도덕적 적용'을 '권'이라 한다.³⁵⁾ 즉 경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경의 현실적 운용이 바로 권도이다.³⁶⁾³⁷⁾³⁸⁾ 권도가 새로운 정의로 부각된 것은 독립국가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를 저해하는 외국열강들을, 비록 폭력이지만 '권도'라는 정의로 격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원성을 여는 보편, 패권을 초월하는 보편³⁹⁾의 재구성 작업이

35) 백종석, 「맹자철학에서 권도의 철학적 해석」, 『철학논집』, 16집, 2008, 94-113쪽.
 36) 이철승, 「『논어』에 나타난 권도의 논리 구조와 의미」, 『시대와 철학』, 21권3호, 2010, 93~117쪽.
 37) 『제국신문』은 1907년 5월 17일 지면을 확장하는 등 새롭게 출발하면서 학문론을 게재하기 시작한다. 이해조는 『윤리학』(1908.6.20.~10.27)을 연재하면서 '권도'와 '상도'를 분리해 설명한다. 제50장 상도론에서 상도가 '변하지 않는 삶의 도덕적 지향점'이라면 '권도'는 '변하는 때에 처치하는 도리'로서 위생을 통해 병을 예방하는 것이 상도라면 병이 발생했을 때 약을 통해 병을 고치는 것이 권도라 말한다. 이해조는 『윤리학』이 '실천을 통해 사회의 발달을 돕는 학문'임을 강조한 바,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학정신을 계승한 측면을 엿보이는데(김복순,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의 타자성』, 『여성문학연구』31호, 2014), 당대의 급변하는 정세로 볼 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책들'이라든지 '근대적인 제도나 기술의 도입'과 관련해 '상도'보다 '권도'가 요청된다고 보았던 것 같다.
 38) 한편 『소금강』의 작가 빙허자(憑虛子)와 관련하여 신채호 설이 대두되었으나(김복순, 「신소설 소금강과 항일의병운동」, 『연세어문학』 20집), 「윤리학」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이해조 설이 설득력을 일부 지니게 된다. 영웅사관으로부터 민중적 지향을 보이며 대중교, 아나키즘으로 나아간 사상적 궤적과 관련해서는 신채호일 가능성이, 문체와 관련해서는 이해조일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김복순, 「신소설 『소금강』에 대하여」, 『신소설 세미나 발표요지』, 「신소설과 젠더」 연구팀, 2014.8.9.

라 할 수 있다.

『소금강』은 변법적 개화론자인 주인공 구홍서가 개화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후 활빈당 운동에 참여하고 의병운동에 나서면서 간도 마적도 소탕하고 독립군 전투를 암시하는 과정에 다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다. 3·1 운동보다 앞선 1910년 초에 벌써, 두 개의 민족운동 노선인 애국계몽노선과 민중운동노선의 결합을 보여 주고, 개화파=친일파의 단순도식을 교정해 주며, '민중적 입장'에 기초해 반봉건, 반외세인식, 낙관적 전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⁴⁰⁾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민혁명에 기초한 '서구적 보편' 방식과 다르다.

구홍서는 촌민들이 활빈당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활빈당에 참여하여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한다.

대경대법으로 말할진대 그 일이 비록 법을 범하는 패류의 혀는 바이나 실지로 그 본의를 궁구하면 남아의 국축지안인 기개로 권도를 행함이라 엇지 구구히 적은 규모를 직하여 우리 이천만 빈한 동포의 참혹히 죽는 것을 등흔히 보리오 차차리 더당에 투신하야 강흔자를 억제하고 약흔자를 붓잡으리라⁴¹⁾

구홍서는 활빈당에 의해 가림주구의 표본인 김관찰(함경도)이 응징당하는 것을 보고, 활빈당의 폭력은 '국축지안'(國築之案)의 기개로 '권도'를 행하는 것이라 의미화 한다. 당시는 평상시가 아니라 이미 외교권, 행정권마저 다 넘긴 식민지화의 긴박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이 아니라 '권도'라는 '정의'로 식민자에게 가하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연표하는 것이다.⁴²⁾

39) 井上達夫, 『普遍の再生』, 岩波書店, 2014, 2~3부 참조.
 40) 이하 자세한 내용은 김복순, 「신소설 『소금강』과 항일의병운동」, 『연세어문학』 20집, 1987.('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에 재수록)
 41) 『소금강』 7회, 『대한민보』, 1910.1.13.
 42) 이는 『빈상설』에서 승학이 남의 집 처녀를 겁간하면서 "권도라는 권자는 이럴 때 쓰는 것이지"라고 한 경우와, 『설중매』의 태순이 "혹 중적이 탄로될까 염려하여

구홍서의 부인 오씨는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혁·극복해 나가는 능동적 인물이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거의 돈에 팔려 가다시피 하여 회양읍으로 시집 갔으나 남편이 교악하고 도벽을 일삼자 교정하려 한다. 실패하자 자결을 시도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모든 해결책이 폐쇄되자 집을 도망쳐 나온다. 남편이 풀어 놓은 정탐꾼에게 쫓기면서도 자신의 뛰어난 기지와 계략으로 위기를 모면한다. 중간에 김극여에게 잠깐 도움을 받긴 하지만 거의 전적으로 스스로를 구제하는 비범성을 지닌 인물이다. 여기서의 비범성은 민중성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강인한 삶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오씨 부인은 또한 봉건적 혼인 제도를 타파하는(재혼) 반봉건적 여인상이기도 하다. 개가를 부도덕하다거나 과렴치한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구두령 역시 오씨 부인이 재혼이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즉 개화의 취지도 십분 성취되고 있다.

오씨 부인을 바치라는 마적 두목 왕대인의 요구는 소금강단으로 하여금 마적을 소탕케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이는 무장항쟁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성을 획득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금강단은 마적에 대한 추상적 이해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이다.

여타의 신소설에서 보여준 몰주체적 개회지상론이나 근대미화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이며, 1910년 초까지도 강한 반봉건, 반외세 인식을 지닌 신소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과 만나게 된다.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민중적 입장에서 민족문학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보기 드문 수작이며, 이로써 신소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금강』은 '여성의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 『애국부인전』 『라란부인전』

잠시 권도로 심가라 변성하운" 경우(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320쪽)와는 아주 다르다. 『빈상설』에는 힘의 위계만 있고 정의는 없으며, 『설중매』의 경우는 임시방편적인 '거짓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 다 사적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대의명분'으로 사용하는 『소금강』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이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으로, 여성의 역할을 '지정의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 능동적 주인공을 보여 주지만 결국 죄인으로 몰아 처벌하였다면, 『소금강』에서는 이와 달리 소극적, 수동적 역할에 그치고만 차이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죄'를 지은 것으로 형상화하지는 않았다. 오씨 부인은 부차적 인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상도'와 '권도'라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정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는 '여성도 국민되기'의 적극적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나,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할 수밖에 없는 '권도'의 세계에서는 남성의 역할은 중시된 반면 여성의 역할은 축소되는 상황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방식에서는 적어도 '여성의 죄'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비록 부차적이기는 하나 여성도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서구적 보편 추동' 신소설에서 보여준 '정의의 원칙'의 한계가 '타자를 포섭'하는 '인정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라란부인 등을 통해 보듯 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도 '인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곧 처형된다는 점에서 그 원칙은 '인정되었으나 곧 취소'되었다. 즉 서구적 보편의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는 비서구적 보편에서처럼, '정의의 원칙'의 타자를 포용하면서 그 한계를 넘어(43)서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1910년을 고비로 우리 계몽문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존의 평가(44)를 수정케 해준다.

43) 악셀 호네프, 앞의 책, 13쪽.

44) 임화에 이어 최원식은 1910년을 고비로 신소설이 계몽성에서 대중성으로, 정치적 성격을 탈각하고 오락물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여성의 죄'로 접근해 볼 때 병합 전/후, 양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설정되어 있어 임화의 주장처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화, 『개설 신문학사(1939-1941)』, 『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소명출판, 2009. ;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비사, 1986. ;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참조.

4. 맺는말

본고에서는 신소설에 나타난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젠더적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사회진화론 사상 및 문명개화를 폭넓게 호명한 신소설에서 '새로운 보편'은 어떤 의미망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 보면서,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와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 계몽의 방식 및 정의·죄와 관련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다른 무력한 모성, 비'자유연애'자 본처, 개인적 욕망 추구의 악비·첩·무당, 복수하는 여자는 '여성의 죄'와 관련하여 신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사례에 해당한다.

서구적 보편을 추동한 경우, 새로운 사회적 주체로 소환되어야 할 어머니와 첩·하인·무당, 행동 주체로서의 복수하는 여자 등은 '무력함' '자유연애'자로서의 결격, 사회적 욕망의 부재, 복수의 비정당성 등으로 타매되면서, '죄'를 지은 것으로 처벌되었다. 이때 여성들은 '정의의 타자'였다. 문명개화의 진정한 주체가 되지 못한 채 개화의 방향을 후세대에게 가르쳐 주지 못한 모성들은 '죄인'으로 형상화 되었으며, 개화의 이념인 자유연애를 제대로 구가하지 못하고 투기를 일삼는 본처들 역시 '죄'로 단죄되었다. 한편으로는 구습에 의한 희생자였지만, 스스로 자유연애의 주체가 되지 못한 탓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위치지어졌다. 청부살인, 교사 등 각종 악행을 저지르도록 배치되었고, 그 결과 '죄인'으로 처벌되었다.

개화의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개인적 욕망 추구의 주체들, 즉 경제적 주체·사랑의 주체·신분타파의 주체·행동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첩·하인·무당 등 당대의 여성 타자들도 처벌되었다. 이들의 개화취지는 서술자에 의해 '사회적' 의미가 없는, 오직 '개인적 욕망'에 불과한 부정적인 것으로 타매되었다. 이들은 거의 당대의 '계급적 타자'라는 점에서, '서구적 보편' 추동 패러다임의 신소설이 '계급' 범주와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여성 중에서도 타자였던 첩·하인·무당들은 개화

의 취지와 부합해도 '정의의 타자'로 설정되어 처벌받는 방향으로 배치된 것이다.

'행동의 주체, 판단 주체'로서의 '복수하는 여자' 또한 자살 등으로 처벌되었다. 남성의 복수는 정당한 것으로 그려진 반면, 여성의 복수는 '남장'을 하여야만 가능하거나, 정당해도 처벌되었다. 남성의 경우 무력한 가장, 난봉꾼, 부랑자, 투기꾼도 처벌되지 않았으나, 유독 여성은 '정의의 타자'로 취급되어 처벌받도록 배치하였다. 이 신소설들은 '문명개화'라는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면서 개화의 취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여성의 죄'를 남성과 달리 배치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소설이 '여성의 죄'를 토대로 한 국민국가 패러다임을 구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국민국가 패러다임의 경우, '여성의 죄'를 특별히 설정하지는 않았다. 즉 '여성의 죄'의 '부재'를 보여주었다. 서구적 보편을 추동하는 경우 '여성 영웅'일지라도 죄인으로 처벌된 반면,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한 경우는 여성 영웅의 모습은 약화되어 있을지언정, 여성의 죄로 형상화 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 새로운 국민국가 만들기에서 여성도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근대성의 '주체' 범주에서 여성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서구적 보편 추동' 신소설에서 보여준 '정의의 원칙'의 한계가 여기서는 '타자를 포섭'하는 '인정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있었다. 이는 '근대성의 젠더가 남성성'이라 분석한 기존의 이론을 수정케 하는 부분이다.

서구적 보편을 추동한 경우 신소설에 나타난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젠더'를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었다. 비서구적 보편을 추동한 경우 '젠더' 원리는 상당히 축소되거나 약화되어 있었고, '권도'라는 새로운 '정의' 범주가 우선성의 원리로 채택되어 있었다. 권도라는 새로운 정의는 여성성과 배치·모순되지 않았다.

서구적 근대·서구적 보편에서 여성성은 근대성의 특수성에 해당되는 지표임을 보여 주었고, 비서구적 보편에서는 젠더보다 '민족' '국가' 범주가 우선성으로 부각되어 있었다. 이로써 모든 국민국가 패러다임에서 '젠

더'가 핵심원리, 우선성의 원리였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서구적 보편)과 비서구적 국민국가 패러다임은 차이가 있었으며, 진화론의 수용에서 확인되듯 특수성이 있었다. 보편의 재구성과 관련해 신소설을 분석한 결과, 1910년을 고비로 우리 계몽문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기존의 평가(최원식)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서구적 보편 추동의 신소설 사례에서 드러나는 수적 열세는 신소설이 서구적 보편을 더 열정적으로 형상화 했음을 반증해 줄 뿐, 신소설의 젠더적 성격을 약화시키지는 않는다. 신소설은 비서구적 보편보다 서구적 보편이라는 가치체계를 당대의 지향 담론으로 더 선호·수용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1. 논문

- 김복순, 「신소설 『소금강』과 항일의병운동」, 『연세어문학』 20집, 1987, 5~38쪽.
 김복순, 「근대초기 모성담론의 형성과 젠더화 전략」,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14집, 2007, 5~51쪽.
 김복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성립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17호, 2007, 177~223쪽.
 배주영, 「신소설의 여성담론 구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8, 1~90쪽.
 우남숙, 「사회진화론의 동아시아 수용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10권 2호, 2011, 117~141쪽.
 유봉희, 「동아시아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계보」, 『한국학연구』 32집, 2014, 177~207쪽.
 이선경, 「한국 근대 초기 소설에 나타난 보편성의 재구조화 양상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4, 1~229쪽.

- 이영아, 「신소설의 개화기 여성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0, 1~74쪽.
 이유나, 「초기 한국 개신교의 죄 개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1~174쪽.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의식의 전환」,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5, 1~179쪽.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3, 1~182쪽.

2. 단행본

- 권보드래, 『신소설, 언어와 정치』, 소명출판, 2014, 15~66, 119~141, 230~284쪽.
 김미정, 『차이와 윤리: 개화주체성의 형성』, 소명출판, 2014, 6~7쪽.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 312~335쪽.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센터 편, 『동아시아, 근대를 번역하다』, 점필재, 2013, 27~28쪽.
 배정상, 『이해조 문학 연구』, 소명출판, 2015, 81~99쪽.
 임화, 「개설 신문학사(1939~1941)」, 『문학사: 임화문학예술전집 2』, 소명출판, 2009, 9~346쪽.
 최원식, 『한국근대소설사론』, 창비사, 1986, 9~178쪽.
 최원식,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55~188쪽.
 하야카와 노리요 외 지음,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이은주 역, 소명출판, 2009, 56~81, 131~152쪽.
 岩井智子, 『復讐の社會學: 女たちの場合』, 三元社, 1997.
 井上達夫, 『普遍の再生』, 岩波書店, 2014, v-x vi, 146~156쪽.
 매릴린 엘름, 『아내의 역사』, 이호영 역, 책과함께, 2012, 11~17, 267~338쪽.
 악셀 호네트, 『정의의 타자』, 문성훈 외 역, 나남, 2009, 9~14, 169~216쪽.
 알랭 쉬피오, 박재성·배영란 옮김, 『법률적 인간의 출현』, 글항아리, 6~10, 95~142쪽.

Abstract

Women's Sin as The Nation-State Paradigm

Kim, Bok-Soon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gender of the nation-state paradigm that has been shown in the new-novels. Examining the "new universality" that appeared in this new-novels implied such meanings, It was discover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ases that had been promoting the western universality and non-western universality.

Nation-state paradigm shown in new-novels the former case, had with the "gender" important principle. In the latter, nation-state paradigm had the category of "nation-state", "nation" than gender. By this, all of the nation-state paradigm had not important principle with the "gender".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re was a particularity.

Key words : New-Novel, Women's Sin, Motherhood, Revenge, Social Darwinism, Enlightenment, Western Universality, Non-Western Universality

■ 본 논문은 2015년 3월 20일에 접수되어 2015년 3월 25일부터 4월 17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5년 4월 2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